

The Voice of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광야의 소리'란?

본 광야의 소리는 알버커키 감리교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로서 다음과 같은 발행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야의 소리는 뉴멕시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발행한다. 둘째 광야의 소리는 본 교회 소식지로 활용한다. 연합감리교회 소수민족지역교회 위원회(EMLC)에서는 이런 취지를 후원하고 있다.

뉴멕시코 각 도시에 본 광야의 소리를 배포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나 한인들을 통해서 배포하고자 한다.

배포 방법은 뉴멕시코에 있는 각 도시마다 도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품점이나 잡화점 등에 비치해 놓을 것이다. 본 광야의 소리가 지역 한인들의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이다. 뉴멕시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발굴되면 연락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지역 한인이나 기자들은 본지 담당하고 있는 권구자 부장(전화 505-553-1009, 이메일 kuchachoy@q.com)에게 연락을 주기 바란다.

보낼 주소 Mailing Address

To: Kucha Choy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내 용 Contents

- I. 뉴멕시코주 소식 page 2
뉴멕시코주 한인회/ 제 13대 한인회장 이취임식
뉴멕시코주 어버이회/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UNM 한인 학생회/ Asian American Festival
문상귀 한국학교 협의회장/ NM Pageant 황세희씨
한인회 바자회 소식/ 한국학교 소식
알버커키와 리오 란초 수돗물 사용 규제
뉴멕시코 주립대학(UNM) 학비 인상
- II. 뉴멕시코 여행 안내 page 5
- III. 뉴스 뉴스 뉴스 page 6
고화질(HD) TV 선택방법/ 50대 한인 아들 살해
셰크라멘토 한인 경찰 총격으로 숨져
30-40대 남성 실직 최대
한국 주부들 미국 간호사로 취업 열기
- IV. 건강 코너 page 9
하루 한번 귀 잡아 당기기
소금에 관한 20가지 지혜
- V. 선교지에서 온 편지 page 11
뉴멕시코 켈럼에서 온 선교 편지
인도 실리구리에서 온 선교 편지
- VI. 마음이 담긴 좋은 글 page 13
성금요일에 만난 예수 (조동욱)
나의 애장품 (이경화)
평생감사 (이은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철수와 영희)
주옥같은 말의 향기 (이석중)
마른 장작 (국정현)
웃어봄시다/새복기도 (박지나)
- V. 뉴멕시코 교회 예배 안내 page 19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 이철수 505-417-2119 chalss2@hanmail.net



뉴멕시코주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1987년에 설립된 이래 뉴멕시코 한인회는 계속 성장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는 한인 회관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한글 학교(매주 금요일, 토요일)와 한미클럽(경노회 매주 목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여러 이사님과 임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인회 웹사이트 www.kaanm.com

회장: 김두남 회장

전화 (505)270-1984

이메일 kiminnewmex@msn.com

한인회관 주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전화 (505) 271-1777

제 13대 한인회장 이취임식

일시: 2009년 4월 19일(주일) 오후 6시, 장소: 한인회관

뉴멕시코주 제 13대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L.A. 총영사님과 역대회장님 및 이사님, 내빈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지난 회기동안 한인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문상귀 전임회장의 이임식과 새로 취임하는 13대 김두남 회장을 환영하는 행사로 뉴멕시코주 지역 모든 한인분들과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묵묵히 봉사해 주신 전임 임원들과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신임원을 또한 임원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시간과 수고를 드렸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어서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단합된 힘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취임식 후에는 임원님들과 봉사자분들이 준비하신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광고를 들지 못하신 지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뉴멕시코주 어버이회

한미클럽으로 불려오던 경로회가 한인회 부설기관인 어버이회(senior)로 개명되었습니다.

*이번주 어버이회 모임(4.18일 목요일)은 한인회관에서 모이지 않고 신임회장 김두남님의 식사 제공으로 Yen-ching에서 12시에 있습니다. 어버이회 모임 식구와 한인회임원/이사 그 외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꼭 오셔서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에서 모여서 떠나는 시간은 11:30am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셔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5월 7일 목요일 어버이회 모임은 어머니날 행사로 윤태자님댁 뒷뜰에서 Picnic을 갖겠습니다. 시작은 오전 11시부터이고 한인회에서 모여서 떠나는 시간은 10:30입니다. 점심과 게임/빙고 보물찾기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윤태자님댁 주소: 811 Green Valley Rd. NW ABQ, NM 87107, 전화 331-4248 *한인회관에 Map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뉴멕시코주 교민들에게는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동시에 경제인들간의 단합과 친목,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뉴멕시코주 한인회에서 경제인 협회를 창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에 1회의 한인업소록 발행에 필요한 명함이나 상호를 한인회와 관계된 임원이나 봉사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조속한 시간(4~6월 중)내에 발행하여 교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문의: 문상귀님: 505-991-8888, 김두남님: 505-270-1984

UNM 한인학생회

광야의 소리를 통해 UNM 한인학생회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2009년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활동해 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주요 임원진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주세요.

회장: 김형섭 e-mail: redbijou@unm.edu

cell phone: (505) 463-5320

회계 및 총무: 신지수

e-mail: skru2080@unm.edu

cell phone: (505) 553-9080

manager: 허병석

e-mail: museblue@unm.edu

cepp phone: (505) 917-6983

Asi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Festival

일시: 2009년 5월 17일(일요일)

장소: Civic Plaza Downtown

내용: 태권도 시범, 부채춤, 가야금연주 기타

담당: 이선아 예술부장(505-828-0306)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pend the day with friends and family LISTENING TO MUSIC, tasting Asian foods, WATCHING PERFORMANCES, and just having a great time at the

Festival of Asian Cultures

2009

Sunday, May 17th
10:30 AM-4:00 PM

At Albuquerque's
Harry E. Kinney Civic Plaza
Marquette & 4th St. NW



Free Admission

Food Vendors

Participating Cultural Groups Include:

Cambodian, Chinese, East Indian, Filipino, Hawaiian, Indonesian, Japanese, Korean, Lao, Middle Eastern, Nepali, Tahitian, Thai, and Vietnamese

Feel free to wear your Asian attire or costume.



Presented by the
Asi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Inc.

Funded by Urban Enhancement Trust Fund and

Cosponsored by City of Albuquerque and Ta Lin International Market
(Questions/Information call Maide: 505-903-0202)

문상귀 해외 한국학교 교장 협의회장

12대 정임회장으로 한인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정임 한국학교 교장으로 한국학교에 많은 공을 세운 문상귀님이 금번 해외 한국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취임식이 4월18일 L.A.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세계 이민사회에서 한글을 전세계로 알리고 지켜나가는 일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Mrs. NM Pageant 참가하는 황세희씨



이번 2009년도 미세스 뉴멕시코 선발대회에 출전하게 된 황세희씨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멕시코 중남부 지역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라는 배경 때문인지 뉴멕시코 아시안 어메리칸 협회에서도 후원을 약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선발대회 심사중 50%가 면접에 해당하는데 이때 스폰서의 힘이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열

마를 후원 받았으나 보다는 누구에게서 후원을 받았느냐는 것이 큰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한인회에 비치된 후원서류를 통해서 개별 혹은 단체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인을 대표로 선발대회에 나가는 응원의 메시지 정도 혹은 이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이 지역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09년 6월 20일 (토), 7pm

장소: ABQ Journal Theatre

*아래로 링크하시면 황세희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aeheeduran.com/>

한인회 주관바자회 소식

한인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후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고 한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정기적으로 바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4월 29일(수요일)에는 임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리 주문을 해 주시면 모자람 없이 잘 꾸려 나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5월 13일(수요일)에는 만두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에 관한 전반적인 (주문과 구입에 관한)사항은 낸시부회장님 (505-307-1227)에게로 연락 주십시오.



뉴멕시코주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알버커키 공립학교 스케줄에 맞추어 가을학과 봄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 봄학기는 5월 중순에 끝나며, 2009 가을학기는 9월11일/12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수업시간은 청소년/성인반은 금요일 (저녁), 학생반 (4세 이상) 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follows the Albuquerque Public Schools (APS) traditional calendar. 2009 Spring Semester will end in May, and 2009 Fall Semester is scheduled to begin on September 11th/12th. Youth and adult class(es) meet on Friday evenings, and children (4-yrs and up) classes meet on Saturday mornings.

여름방학 중에 이시영 선생님 (MFA, U. of Penn.; 현 APS 초등학교 미술선생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특별미술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 인원수는 최고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선착순). 등록마감은 7월 3일입니다. NMKLS is pleased to offer following summer art classes lead by Mr. Siyoung Lee (MFA, U. of Penn.; APS elementary art teacher). Each class is limited to a maximum of 20 students (based on registration order). Please register by July 3rd.

* 4세 - 성인 / 4-yrs to adult

7월 20일 - 24일 (월-금), 오전 9시 - 오후 12시: 서예 (입문반) (\$100 + 재료비) 7월 27일 - 31일 (월-금), 오전 9시 - 오후 12시: 종이 점토 (\$100 + 재료비) July 20 - 24 (M-F), 9 AM - Noon: Introduction to Korean Calligraphy & Painting (\$100 + materials fee) July 27 - 31 (M-F), 9 AM - Noon: Paper-clay (\$100 + materials fee)

* 10세 - 성인 / 10-yrs to adult

7월 20일 - 31일 (월-금, 2주), 오후 1시 - 3시: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입체조각 (\$200 + 재료비, 준비물: 디지털 카메라) July 20 - 31 (M-F, 2 weeks), 1 - 3 PM: Sculpture using Digital Photography (\$200 + materials fee & must bring a digital camera)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수도사용 규제 조치

알버커키 시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스프링클러 사용 금지하고 있다. 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간이다. 이 시간에 손잡이 호스를 사용하거나 물통으로 물을 주는 것은 허락된다. 그러나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려면 이른 아침 시간이 좋다.

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이나 여름 낮에 물을 주면 사용한 물의 절반이상이 증발되거나 바람에 말라버린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최상의 시간은 자정에서 해 뜨는 시간 사이에 주는 것이다. 이때는 습도가 높고 온도나 풍속이 낮을 때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물을 줄 수가 없으면 저녁에 물을 주도록 하라. 낮 시간 전에 물을 주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을 주면서도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에 줄 것인지 아니면 저녁에 줄 것인지 결정할 때는 기상 조건을 살펴보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면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물주는 것을 연기하라.

앞에 언급한 시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수돗물 보호와 낭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위반 시에는 수돗물 고지서에 벌금이 추가될 수도 있다. 또한 위반 경력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다. 처음 위반 시에는 20불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전에 위반 경력들이 있다면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1000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에 관한 시간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물을 주거나 손으로 물을 주는 경우. 공중에 물을 뿌려서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들.

* 새로 잔디를 입히거나 조경공사를 해놓고 잔디를 살리기 위해 처음 30일 안에 또는 새롭게 씨를 뿌린 후에 처음 1년 안에 물을 사용하는 것(허락받아야 함).

* 기존 잔디나 새로 만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살포했을 경우에 하루 동안(허락받아야 함).

* 땅을 다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 시스템의 상태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작동해 보는 경우.

리오 란초 시내 물 사용규제 시작

리오 란초 시 당국은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스프링클러 사용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만 허락한다.

1. Department of Public Works / Utilities Division에서 허락받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ㄱ. 관개시설을 보수 또는 수리할 경우.

ㄴ. 새로 잔디를 입히거나 씨를 뿌려 조경공사를 시작한 지역은 처음 30일 동안.

ㄷ. 기존 잔디나 새로 만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살포했을 경우에 하루 동안.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ㄱ. 땅을 다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ㄴ. 물방울로 떨어뜨리거나 약하게 뿜어내어 주는 물. 손으로 물을 주는 경우. 통에 담아서 물을 주는 경우.

3. 손으로 물을 주거나 차를 닦거나 기타 밖에서 사용할 경우는 물을 잠그는 장치가 있는 노즐을 사용해야 한다.

4. 가뭄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시행과 요금

ㄱ. 시 당국은 공포한 내용대로 시행하는지 조사하고 또한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할 것이다.

ㄴ. 위반을 조장한 책임자에게 벌금을 물을 것이다.

ㄷ. 2인치 미터 사용 시 첫 위반 시는 경고장, 둘째는 50불, 셋째는 100불, 넷째는 150불, 다섯째는 200불, 여섯째는 300불과 미터기에 규제 장치 비용 설치비 추가.

ㄹ. 2인치 미터 이하 사용 시 첫 위반은 경고장, 둘째는 25불, 셋째는 50불, 넷째는 75불, 다섯째는 100불, 여섯째는 150불과 미터기에 규제 장치 비용 설치비 추가.

뉴멕시코 주립대학 (UNM) 학비 인상

내년부터 대부분의 뉴멕시코 주립대 학생들의 학비가 5.5퍼센트 인상된다. 학교 당국은 학비 인상을 이미 결정한 상태이다. 뉴멕시코 주민인 대학생 경우에는 일 년에 268달러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은 본래 학교 행정부가 요구한 5.9퍼센트보다는 낮은 것으로 학생들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인상해서 거두어들이는 돈은 장학금과 교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뉴멕시코 주민 풀타임 대학생 경우 내년도 학비와 수수료들을 합치면 5,101달러가 될 것이다. 뉴멕시코 주민이 아닌 대학생은 1,546달러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한다. 이것은 9.8퍼센트 인상한 금액이다.

다음은 대학원 인상 비율로 뉴멕시코 주민인 경우와 주민이 아닌 경우의 퍼센트이다.

College of Arts & Science graduate students: 5.5%, 9.8%;

Architecture graduate students: 7.3%, 10.5%;

Law School: 8.9%, 9.9%;

Physical Therapy doctorate: 67.8%, 30.3%;

Pharmacy graduate students: 5.2%, 9.9%;

Medical School: 5%, 5%;

Gallup과 Valencia 분교: 인상 없음

Los Alamos 분교: 2.9%, 3.6%;

Taos 분교: 주민은 인상 없음,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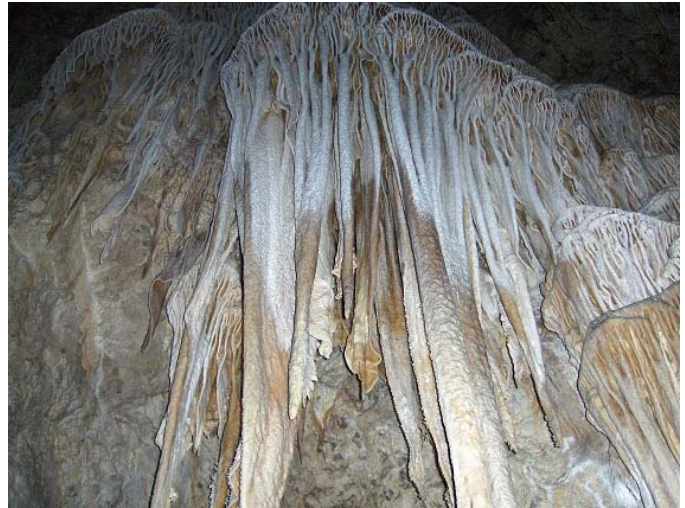


칼스바트 동굴 Carlsbad Caverns



뉴멕시코 남부 Guadalupe Mountains에 위치한 칼스바트 동굴은 다양한 역사를 가진 국립공원이다. 산 지하에 있는 300

개의 동굴 중에서 113개의 동굴은 국립기념물들이다. 동굴의 구성은 매우 특이하다. 이 동굴들은 대부분 동굴들처럼 흐르는 물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강한 황산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다. 동굴들에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졌다. Balloon Ballroom, Chocolate High, King's Palace, Queen's Chamber, Underground Lunchroom.



동굴들은 Jim White란 카우보이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1890년대 후반에 10대 청년이었던 Jim은 손으로 만든 사다리를 사용해서 동굴 모양을 탐사했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동굴들이 매우 인상적인 것들이라고 확신시키느라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1915년과 1918년 사이에 Ray V. Davis란 사람이 동굴을 사진 찍어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23년도에 Time지에 그 사진이 발표됨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생겼다. 이 동굴들은 1923년 10월에 국립 기념물이 되었다. 1925년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동굴에 들어가려면 비료를 실어 나르는 양동이를 타야만 했다. 감사하게도 계단이 만들어짐으로 더 이상 양동이를 타지 않아도 되었다. 1950년도에는 지하 식당이 Big Room에 생겨남으로 관광객들이 동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Carlsbad Caverns National Monument는 1995년도에 World Heritage Site로 지정되었다.

동굴들을 관광하는 것 외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있다. 흥미로운 행사 중 하나는 Bat Flight Program으로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 저녁이면 관광객들은 동굴들 입구에 있는 야외극장 밖에 앉아 박쥐들이 폐를 지어서 동굴에서 나오는 장관을 보게 된다. 동굴을 관광하려면 일찍 올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거의 오후 3:30분까지만 동굴 입장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연락처 575-785-2232, www.nps.gov/cave)



'HD-TV'도 천차만별 [LA중앙일보]

가격 거품이 속 빠진 HD-TV가 샀을 적기를 맞았다. 특히 디지털 TV 방송,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첨단 영상기기, 플레이어스테이션 같은 비디오 게임기 등이 촉매제 역할을 해 한인들 중에서도 낡은 TV를 버리고 HD-TV를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HD-TV 샀는데 나선 소비자 중에는 다양한 브랜드, 사이즈, 가격, 종류 등에 당황해 구입에 애를 먹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05년부터 시중에 등장한 HD-TV만 16만8000여 제품에 달한다 하니 나만의 TV 구입이 어려움을 만도 하다. 컨슈머리포트(CR)지가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 구입 요령과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들을 조사했다.

◇저렴한 가격 우선...50인치 미만 '해상도 갈등' 필요없어

스크린 사이즈보다 1000달러 이내의 저렴한 가격대와 합리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마지노선을 42인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실용으로 적당한 40~42인치 LCD, 42인치 플라즈마 TV 등을 800~1000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500~600달러 예산으로 TV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 32~37인치 제품을 공략한다. '해상도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720P 해상도와 좀 더 고화질인 1080P 해상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50인치 미만 TV에서 해상도 차이는 일반인이 느끼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추천제품: 비izio(Vizio) VW32LHDTV 32인치 LCD 450달러, 소니(Sony) Bravia KDL-32L4000 32인치 LCD 600달러, 인시그나(Insignia) NS-LCD37-09 37인치 LCD 650달러, 패너소닉(Panasonic) TH-42PX80U 42인치 플라즈마 900달러, 샤프(Sharp) Aquos LC-42D85U 42인치 LCD 1100달러.

◇영화광이다...잔상 남지 않는 '로컬 디밍' 기능 확인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서라운드-사운드 홈 시어터 시스템에 걸맞는 고화질 TV를 원한다면 50인치 이상, 1080P 해상도 TV를 골라야 후회가 없다. 예 전에는 영화팬들이 잔상이 남지 않고 색감이 자연스러운 플라즈마 TV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엔 '로컬 디밍(Local Dimming) LED 백라이트' 기능을 탑재해 단점을 보완한 최신 LCD 제품들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삼성, LG, 소니, 샤프 등이 LED 백라이트 LCD TV를 제공하고 있지만 워낙 신기술이라 대중화되는 데 시간이 걸려 아직 가격 프리미엄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화질 조절 기능, THX 등 사운드 시스템 지원, HDMI 등 충분한 오디오·비디오 입력 단자도 따져봐야 한다.

▶추천제품: LG 52LG50 52인치 LCD 2100달러, 패너소닉 TH-50PZ800U 50인치 플라즈마 2400달러, 소니 Bravia KDL-40XBR7 40인치 LCD 2700달러, 삼성 LN55A950 55인치 LCD 4200달러, 파이오니어(Pioneer) PDP-6020FD 60인치 플라즈마 5500달러.

◇스포츠에 죽고 산다, 화면 넓고 전환 빠른 플라즈마 제격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는 날마다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TV

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역시 '크기'와 '해상도'가 관건이다. 52~55인치 LCD, 58~60인치 플라즈마 등 빅 스크린 1080P HDTV가 인기다. 삼성, 미쓰비시(Mitsubishi)의 60~73인치 리어 프로젝션 DLP TV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크지만 LCD나 플라즈마에 비해 고장률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다. 스포츠 경기 시청을 위해선 시청 각도가 넓고 화면 전환이 빠른 플라즈마가 제격이지만 낮 경기를 시청할 때는 화질이 더 밝은 LCD가 오히려 낫다는 평이다. 또 120Hz(초당 120 프레임을 화면에 전송)를 지원하는 LCD TV는 기존 60Hz 제품에서 지적되던 잔상 문제를 해결, 초고화질(Full HD) 화면을 제공한다.

▶추천제품: 삼성 PN50A550 50인치 플라즈마 1600달러, 도시바(Toshiba) Regza 52XV545U 52인치 LCD 1900달러, 소니 Bravia KDL-52W4100 52인치 LCD 2300달러, 패너소닉 TH-58PZ850U 58인치 플라즈마 3500달러.

◇남들과 달라야한다...3D 재생 가능한 3차원 입체가 좋아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구매를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의 특징이다. 로컬 디밍 LED 백라이트, 잔상없는 생생한 화질을 구현하는 240Hz 기술 등을 담은 진보적인 제품들이 이들을 위한 TV다. 소니의 KDL-52XBR7(4000달러) 제품이 대표적이다. LED 대신 레이저를 빛의 소스로 사용하는 미쓰비시의 레이저뷰(LaserVue) DLP TV(65인치·7000달러)도 혁신적이다. 3D 영상 재생이 가능한 3차원 입체 TV다.

▶추천제품: 패너소닉 TH-46PZ850U 46인치 플라즈마 2200달러, 미쓰비시 Diamond Series LT-46246 46인치 LCD 2300달러, 삼성 PN 50A760 50인치 플라즈마 2500달러, 소니 Bravia KDL-46XBR8 46인치 LCD 5000달러.

◇멋진 스타일이 중요...얇고 개성 강한 디자인 가독

슬림하고 개성 강한 디자인의 고화질 TV도 시중에 쏟아져 나와 있다. 히타치(Hitachi)의 '1.5 시리즈'는 이를 그대로 LCD TV 두께가 1.5인치다. JVC의 '프로시전(Procion) 시리즈'도 1.5인치다. LG의 'LGX 슈퍼 슬림'(42인치)은 1.8인치 두께를 자랑한다. 샤프는 1인치 두께의 LCD TV인 'XS1U'를 최근 선보였다. 히타치, 패너소닉, 파이오니어 등은 초슬림 플라즈마 TV를 판매하고 있다. 크레딧 카드 3장 두께(3mm)에 불과한 소니 'XEL-1'도 있다. 그러나 OLED방식인 이 TV는 11인치(2500달러) 제품만 시중에 나와 있다. 삼성의 터치 오브 컬러(Touch of Color), LG 스카렛(Scarlet), 샤프 SE94, 소니 XBR 등은 화려한 색상과 조명, 메탈·대리석 캐비닛, 유리 프레임 등 기존 LCD 제품들과 차별화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들이다.

▶추천제품: 소니 Bravia KDL-37XBR6 37인치 LCD 1500달러, LG 42LGX 42인치 LCD 1800달러, 삼성 LN46A850 46인치 LCD 2240달러, 삼성 PN50A760 50인치 플라즈마 2500달러, 히타치 Directors Series UT42X902 42인치 LCD 2700달러, LG 60PG60 60인치 플라즈마 3300달러.

50대 한인 아들 살해 충격[한국일보]

시카고 인근 노스브룩에 거주해 온 한인 남성이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

노스브룩 경찰과 북부 서버브 강력범죄반(NORTAF)에 따르면 16일 새벽 3시45분께 노스브룩 지역의 한인 주택에서 쫓고(22)씨가 아버지 고형석씨(56)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휘두른 부엌칼에 목을 수차례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고씨의 부모를 현장에서 체포, 장시간 조사를 벌인 끝에 아버지 고형석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1급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고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별다른 혐의를 받지 않고 풀려났다.

용의자 고형석씨는 17일 스코키 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리에 출두했으며 5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고형석씨와 아들 쫓고씨는 평소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종종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및 이웃들에 따르면, 아버지는 엄격하고 보수적이며 쫓고한 반면 아들은 기대에 잘 부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고씨는 글렌브룩 노스 고교를 졸업한 후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했으나 1년 후 학교를 그만 두고 이후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브룩 경찰서의 찰스 워닉 서장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불행한 가정폭력의 결말”이라며 “두 사람이 왜 다투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워닉 서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별다른 위협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사건의 충격성을 반영하듯 상당수 현지 언론과 함께 이웃 주민들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살인사건이 조용한 동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듯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2년 6월에는 LA 인근 글렌데일에서 한인 장송남(당시 49세)씨가 아들 사이먼 장(22)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6년 3월에는 LA다운타운에서 윤대권(54)씨가 10세 및 11세난 남매를 차에 태우고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지난 수년간 연례행사 처럼 발생하는 가족간 살인사건으로 한인사회 전체가 경악하고 있다.

사크라멘토 한인 또 경찰 총격으로 숨져

지난 10일 금요일 남가주 어바인에서 일어난 한인여성 경찰 총격 사망 사건에 이어 북가주 사크라멘토에서도 20대 한인이 경찰 총격에 의해 숨졌다. 특히 숨진 한인은 경찰에 의해 제압돼 수갑까지 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또 다른 과잉진압 시비가 일고 있다.

무울증을 앓고 있던 20대 한인남성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4월12일) 오전 10시30분쯤 사크라멘토 인근 풀섬 지역 한

주택에서 올해 23살의 한인 조셉 한씨가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풀섬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칼을 들고 있던 조셉 한씨를 전기 총으로 제압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풀섬 경찰 미셸 비티 공보관(녹취) “the man tried to attack the officers with the knife. One officer Tasered the man twice, but when that and verbal commands didn't subdue him” 풀섬 경찰은 전기총으로 제압하는 데 실패하고 조셉 한씨가 칼을 들고 계속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녹취) “He continued to advance to the officers.. for their own safety, they shoot the man” 총격을 받은 조셉 한씨는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로 후송됐지만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조셉 한씨는 평소 무울증을 앓아왔고 며칠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 한편 가족은 경찰이 이미 조셉 한씨를 제압한 상태였으며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에 따르면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와 칼을 들고 있던 조셉 한씨를 전기 총으로 제압해 실신시킨 후 수갑을 채웠다는 것이다. 실신했던 조셉 한씨가 깨어나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저항하자 경찰이 총격을 가했다고 가족은 전했다.

전기총으로 제압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총격을 가했다는 경찰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과잉진압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라디오 코리아)

30~40대 남성 실직 최대 [연합뉴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0~40대 남성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여성, 청년, 자영업자 등 한계계층을 강타한 데 이어 고용의 가장 핵심계층인 남성, 중장년, 상용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0~49세 남성 취업자 수는 757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9천명 감소했다. 30~49세 남성 취업자 수가 이처럼 급속히 감소한 것은 1999년 3월의 -11만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한참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많은 40대 남성 취업자 수는 38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3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도 1999년 1월의 -3만5천명 이후 10년 여 만에 처음이다. 30대 남성 취업자 수도 374만명으로 5만6천명 감소했다. 가장 안정적인 고용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30~40대 남성에게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직 한파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대란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올 1월에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3천명 감소했지만 30~49세 남성은 오히려 3천명이 증가할 만큼 잘 버텼다. 2월에도 전체 취업자 수가 14만2천명 감소하는 동안 30~49세는 1천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3월에는 전체 취업자 감소폭 19만5천명 중 8만9천명이 30~49세 남성에서 발생할 만큼 해당 계층이 급속히 붕괴됐다. 3월 중 전체 취업자가 0.8% 감소하는 동안 30~39세는

1.5%, 40~49세는 0.9%씩 감소해 전체 취업자 수 감소를 선도하는 형편이 됐다. 즉 3월을 기점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한계계층 뿐 아니라 남성·중장년·상용직 등 핵심계층이 실업 태풍의 영향권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도 30대와 40대 가장들의 실직 현상이 감지됐다. 3월 중 전체 고용률이 57.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30대 고용률은 89.0%로 1.2%포인트, 40대는 90.2%로 1.6%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남성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자영업자 감소 뿐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에서 감원이 시작된데 따른 것"이라며 "고용 위기가 최상층부를 향해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30대 이상, 특히 40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급격히 나오는 것은 고용대란이 한계계층에서 핵심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실물부문의 부실이 가시화되면 40대와 50대 초중반 남성, 대기업 등 부문에서 구조조정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부들 미국 간호사로 취업 열기

돈도 벌고 자녀 유학 뒷바라지 '일석이조'... 미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 급증

간호사 박영희(가명·43) 씨는 대학 졸업 20년 만인 올해 이화여대 간호교육경력개발센터의 NCLEX-RN(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과정에 등록했다. 졸업 후 잠시 병원에 근무하다 졸골 전업주부로 지냈던 그는 4년 전부터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미국 간호사가 되면 중학생 아이를 현지에서 공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재취업을 한 것도 경력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말 해외 취업의 대표 직종으로 꼽히던 간호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주부들이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고, 돈도 벌기 위해 미국 간호사에 도전하는 것. NCLEX-RN 응시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 2003년 1341명에서 2005년 1724명, 2006년에는 2145명을 기록했다. NCLEX-RN 전문 학원도 전국에 20개나 된다.

탄력근무로 6만~8만 달러 연봉 가능

NCLEX-RN에 응시하려면 3년제 이상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간호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간호대학의 편입학 경쟁률도 올라가는 추세다. 수도권외 한 간호대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명문대 졸업자, 대기업 직원, 외대 중퇴생까지 다양한 커리어의 주부들이 편입시험에 응시한다. NCLEX-RN 합격률이 평균 70%를 웃돌 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부들이 NCLEX-RN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병원에 취업하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녀를 미국 공립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다. 또 현지에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에도 유리하다. 학원가에서는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고환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부 수강생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영희 씨도 "같이 수업을 듣는 이들 중에는 나처럼 나이 든 전·현직 간호사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간호사의 급여와 처우가 한국 간호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도 많은 주부가 NCLEX-RN에 도전하는 이유. 이화여대 간호과학연구소 임소연 교수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박봉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결혼을 하면 상당수가 그만둔다. 하지만 미국에 가면 6만~8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는 데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주부도 얼마든지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전직 간호사 안수미(가명·48) 씨는 "한국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가 강해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가 낮은 편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NCLEX-RN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누구나 미국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국 병원에 취업하려면 먼저 취득 후 개별 인터뷰를 치러야 한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 실무 경력과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단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 병원 인터뷰에 합격했다 해도 V.S.C(Visa Screen Certificate)를 받지 못하면 정식 취업이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전문 분야의 취업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의 영어 실력 등을 검증해 V.S.C를 주는데, 의료 분야에서 V.S.C를 받으려면 IELTS 6.5 이상, 토플 550점(PBT) 이상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지난 2월 NCLEX-RN 시험에 합격한 조수정(가명·29) 씨는 "NCLEX-RN 합격자 가운데 미국 병원 취업에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미국 병원이 주는 급여나 보상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美, 2016년까지 간호사 100만명 부족

2005년 간호사 인력난에 시달리던 미국 정부가 외국 이민자를 위한 간호사 취업 비자 5만개를 선발급하면서 취업의 문이 크게 넓어졌지만, 이 쿼터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간호사 취업이 무척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예 유학 비자를 받고 미국 간호대에 진학하는 이들도 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는 미국 뉴욕시립대 레먼대학과 협약을 맺고 미국 간호학사 편입과정(RN-BSN)을 운영한다. 이 대학 송지호 학장은 "우리나라에서 전문대 간호학과 이상을 졸업하고 NCLEX-RN을 취득한 사람이 이 과정에 등록하면 레먼대학에 학사 편입할 수 있다. 이 대학에서 1년 과정을 마치면 미국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비자 스크린 때 영어 점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졸업과 동시에 연봉 5만8000달러를 받는 유급 실무연수(OPT)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을 통해 115명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간호대학과 NCLEX-RN 학원가에서는 미국 간호사 취업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비이민 비자 신설 법안'에 외국인 간호사 비자를 연간 5만개씩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해지는 것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미국 노동국은 2020년까지 280만명의 간호사가 총원해야 하는데 그중 30%인 80만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고, 미국간호대 협회(AACN)도 2016년까지 100만여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NCLEX-RN에 합격한 김은혜(가명·37) 씨는 “미국 병원에 취업해 아이와 함께 유학을 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 하지만 당장 취업을 못하더라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시장 개방 후 우리나라에 돌아올 외국계 대형 병원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오진영)

건강 / 하루 한번 귀 잡아 당겨라



이를 난 장수촌의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매일 밤마다 귀를 비비고 빨강게 되도록 자극한 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라고 한다. 삼국지 유비는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늘 귀를 만졌다고 전한다. 한방에서도 이침(耳針)이라 하여 귀를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서로 상응하는 부위에 침을 놓아 치료했다고 한다. 귀의 중앙에 세로로 꼬리모양으로 크게 부풀어져 있는 부분을 대이룬이라 해 척추에 대응된다. 귀의 위쪽 부분은 엉덩이와 다리에 해당하고, 귓볼은 머리부분이 된다. 귓구멍의 입구부분은 내장과 관련이 있는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다.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귀윗부분은 위쪽으로, 가운데 부분은 양옆으로 잡아당기며 밑부분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기본이다. 귀는 평소에 자주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인 만큼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잡아당기는 강도는 가볍게 통증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것은 좋지 않다. 귀 잡아당기기는 한 번에 약 1분 정도, 30~50회 가량 시행한다. 그러나 귀에 상처가 있거나 귓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귀를 잡아당기기 전에 양 손바닥을 비벼서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귀 잡아당기기의 효과를 높여준다.

▶ 고 혈 압

귓바퀴 뒤 움푹 패인 곳을 누른다. 무리했거나 일시적 흥분이 원인이 되어 혈압이 높아진 경우에는 귀 잡아당기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귓바퀴의 위쪽 뒷면을 만져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이곳을 '강압구'라고 한다. 우선 귀 뒤쪽에 있는 강압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표면을 검지로 눌러 준다. 이렇게 누른 채 귓볼의 밑부분까지 쓸어내리며 잡아당겨 준다. 양쪽 귀를 동시에 7~8회 반복한다. 또 귓볼을 당겨 주면 뒷목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혈압 환자 특유의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부드럽게 해준다. 늘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귀 잡아당기기를 해주면 하루종일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다.

▶ 두 통

귓볼을 잡아당긴다. 간단한 습관성 두통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때는 귀 잡아당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 두통은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 고혈압으로 뒷목이 뻣뻣해질 때와 마찬가지로 귓볼을 조금 세게 잡아당겨 주면 두통이 곧 사라진다. 만성 두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두통의 반사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좋다.

▶ 눈이 침침할 때

귓볼을 눌러 아래로 잡아당긴다.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노화현상에 의한 것과 피로에 의한 것이다. 노화에 의한 눈의 피로는 심하면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귀 잡아당기기를 습관화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장시간의 시청공부나 TV 시청, 컴퓨터 작업 등으로 피로해진 눈을 회복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눈의 반사지점은 귓볼의 한가운데 있다. 귓볼 가운데를 엄지와 검지로 누른 후 밑으로 잡아당긴다. 처음에는 약간 강한 듯하게 누르면서 약 50회 정도 계속해서 반복한다.

▶ 정력 감퇴

귓볼 위 돌기를 얼굴 쪽으로 잡아당긴다. 정력은 나이 들면서 감퇴되어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정력과 관계가 깊은 것은 고환의 반사지점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그곳을 자극함으로써 정력이 증강되고 스테미너가 생기게 된다. 귓볼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고환의 반사지점이다. 이곳에 검지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 돌기 밑으로 손가락을 거는 듯한 느낌으로 얼굴 쪽을 향하여 잡아당긴다. 그런데 돌기 부분의 가장 아래쪽으로는 내분비와 난소의 반사지점이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정력증강에 한층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가꾸어 주기도 한다.

▶ 소화불량

이른각 위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을 자극한다. 귀의 색이 누렇게 귓구멍이 작으며 귀가 얇으면 만성 위장병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식욕이 없거나 트림을 하고 배에 가스가 잔뜩 차 더부룩하다면 장이 안 좋은 것이다. 대장, 소장, 십이지장의 반사구는 귓구멍 위 꼬리처럼 생긴 이른각 바로 위의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다. 이 지점을 돌아가면

서 자극한다. 귀 전체를 돌아가면서 자극해주는 것도 장을 튼튼하게 하는 한 방법.

▶ 어깨 결림·요통

귀 중앙 대이론 주변을 자극한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은 건강 상태를 깨뜨리는 원인. 이럴 때 귀를 통해 통증을 해소할 수 있다. 어깨, 허리의 반사구는 귀 중앙에 크게 볼록 튀어나온 대이론 주변. 이곳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위로 쪽 눌러본다든지 전후 좌우로 돌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소금에 관한 20가지 지혜 ♣

1. 달걀을 삶을 때 삶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걀이 터지지 않는다.
2. 옥수수 등을 삶을 때 삶는 물에 설탕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강해진다.
3.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향도 좋아 지고 정력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4. 가지를 볶을 때 진한 소금물에 담구 다가 볶으면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는다.
5. 보리차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향기가 좋아진다.
6. 옷에 피가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가 땀물이 배어 나온 후 비벼 땀다.
7. 감물이 옷에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갔다가 땀 후 식초탄 물에 빨아 세탁하면 감물이 빠진다.
8. 바닷조개는 소금물에 담가두면 흠이나 모래를 토해낸다.
9. 추운 겨울날 빨래를 할 때 헹굼 물에 소금을 넣어 헹구어내면 밖에 널어도 얼지 않는다.
10. 토마토나 삶은 감자 등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달고 맛이 좋다.
11. 기름 묻은 후라이팬이 뜨거울 때 소금 을 뿌려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이 닦인다.
12. 시금치등 야채를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야채의 색깔이 선명해 진다.
13. 개미가 방에 많으면 장롱 밑이나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없어진다.
14. 버섯요리 할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버섯을 튀겨내면 색깔이 살아나고 독성이 없어진다.
15. 드림을 요리할 때는 드림의 밑 부분을 짚아 내고 바닥을 십자로 칼질 낸 후 소금을 넣으면 독성이 없어진다.
16. 아기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에 소금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17. 코린싱을 할 때 잘 지워지지 않으면 코팅에 분말소금을 조금 넣고 코린싱을 하면 화장이 깨끗이 지워진다.

18. 담수어처럼 흐트러지기 쉬운 생선을 구울 때 소금물에 30분정도 담갔다가 구우면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

19. 껍질을 벗긴 과일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

20. 목감기로 목이 부어 따가울 때는 따뜻한 소금물양치기 특효 (1-2시간 간격으로 자주 해주도록 한다)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꿀을 한 스푼 삼키거나 파인애플주스를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

뉴멕시코 갤럽에서 온 선교 편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성현 선교사-

2008년 여름 사역

1. 6. 4. 08 ~ 7. 10. 08(6주 사역)

- 이 기간은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사역한 기간입니다. 6주 동안 6곳의 사역지를 다녔습니다. 한곳에서 2박3일간 작은 Tent를 치고 사역지에서 야영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 사역은 한의 의료사역이며 저녁 예배 때 찬양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많은 나바호사람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녁 예배 중 어두운 텐트 밖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린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양육의 절박함을 깨달은 기간이며 이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2. 7. 14. 08 ~ 8. 2. 08(3주 사역)

-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한 기간입니다. California에서 온 단기 선교팀원 대학생 8명과 우리 가족 4명, 포함 12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3주 동안 3곳의 선교지에서 나바호 분들이 예배드리러는 커다란 Tent 옆에 함께 Tent치고 야영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단기선교 팀은 Youth Retreat사역과 어린이 VBS사역을 각각 4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준비하였고 성인 저녁 예배를 위해서는 찬양, 팬터마임, 몸 찬양을 준비, 저녁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을 관리하며 통통이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단기선교 사역기간동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믿음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 중에는 주의 종으로의 헌신을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 VBS 사역 중에는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고백들이 흘러 나오며 아이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형상이 깊고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집회 때부터 시작되는 사역은 금요일 저녁 집회 때까지 매일 참석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 집회 때의 찬양과 팬터마임 그리고 몸 찬양 중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기쁨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바호 신자들이 눈물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으로 나바호 목회자들이 모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인가!

3. 8. 4. 08 ~ 9. 20. 08(5주 사역)

- 5곳의 사역 지를 혼자 다니며 사역을 한 기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위 속에 의료 선교와 말씀 사역을 저녁 예배 때는 찬양사역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에는 혼자 트럭 캠퍼 안에서 달과 별을 벗 삼아 더 커다란 주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꿈꾸며 기도하다 잠이 듭니다.

이번 여름사역기간동안 하루 평균 1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0년 전 귀의 병으로 청력을 잃어 들지 못하던 분이 기도와 침으로 청력을 회복했습니다. 오래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팔 신경이상으로 팔을 사용 못하던 분이 자유로이 팔을 사용합니다. 보행기를 사용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자유로이 걸읍니다. 모르핀을 맞아도 지통이 안 되던 환자의 통증이 멎읍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던 할머니가 기뻐하며 손과 손가락을 맘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없는 만성 두통 환자의 두통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나바호 목회자, 교회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나바호 교회의 자립적 성장과 부흥 그리고 교회부흥에 힘입어 나바호 전역에서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 9.20 08 이후

현재 5월에 여성 평신도 컨퍼런스를, 11월에 남성 평신도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에도 의료 사역과 저녁 예배 때 찬양인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나바호 목회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9년 여름 사역 시작 전, 목회자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바호 목회자들의 목회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년 컨퍼런스, 찬양컨퍼런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바호 전체를 놓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바호의 부흥, 그리고 이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필코 이 일을 이루시리라 믿읍니다. 훈련 프로그램과 인력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te Rains Healing Mission 기도 제목

I. 나바호 교회의 대 부흥을 위해서

1. 목회자

a.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주신 목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b. 한국적 목회철학을 나바호에 접목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c. 한국교회 영성의 신학교육 및 영성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2. 평신도 지도자 양육

a.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b. 젊은이들 교회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회 학교 교사 양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c. 신학교육을 통해 사명감 투철한 젊은 목회자들을 양성 할 수 있도록, d. 청소년 및 청년 찬양 사역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II. 선교 병원을 위하여

a. 한의 선교병원을 Window Rock에 설립할 수 있도록, b. 이동 선교 병원을 위해 Trailer 구입 할 수 있도록

III. Late Rains Healing Mission Center설립을 위하여

a. 선교병원을 중심으로 신학교 겸 훈련원 강의실 및 숙소, 식당,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건립을 위하여

IV. 선교사역의 지경을 전체 Native American으로 넓혀 주옵소서.



Late Rains Healing Mission

(조성현·정아·영대·영준)

605 Peretti St, Gallup, NM 87301

Tel : 505-863-6573 Cell : 505-870-9838

E-mail : navajo@won@yahoo.com

후원계좌명 : Late Rains Healing Mission

은 행 명 : Wells Fargo 계좌 번호 : 8021021673

인도에서 온 선교 편지

주님의 부활 동산에 함께 하시는 선교 동역자 분들께, 조동욱 선교사

성금요일의 고난을 너머 부활의 권세를 덧입는 복된 날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곳 저희들은 지난 몇 달을 시원하게 보내다가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 긴장하게 됩니다. 지난 몇 달 문안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문안을 겸하여 선교지의 소식들을 전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이곳 인도 실리구리 Siliguri 지역의 선교는 주님의 은혜 아래 돈뎌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은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열매이기도 합니다.

<열방신학대학 운영>

열방신학 대학은 오는 4월 29일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 57명 중 아홉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생들은 각각 신학사 과정 네 명중 목회에 헌신하는 이가 세 명, 그리고 한 명은 목회를 겸한 대학원공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우리 신학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한 명은 학교 행정 직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목회를 맡게 됩니다. 이들의 종족 출신 배경을 보면 벵갈리 Bengali 가 두 명, 아쌈미 Assami 한 명, 네팔

리 Nepali 네 명 그리고 나라랜드 Nagaland 출신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중순에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신입생 2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받을 경우 재학생 수는 전체 70명이 됩니다. 현재 신학교사역에 필요한 것은 교수 사택과 여학생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신학 대학이 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또한 수준 있는 교수를 초청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신학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1. 졸업하는 이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후수꾼들이 되도록, 2.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신입생으로 선발 되도록, 3. 신임 교수 추가 임명과 4. 교수사택 및 여자 기숙사건축을 위한 재정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회 개척 사역〉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 Nepal 에 줄리어스 Julius 형제가 맡고 있는 교회는 아직 공식적인 이름도 없지만 이미 교인 50명이 넘지만 계속 세례자들이 증가하는 교회로서 스스로 작은 규모의 어린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록 대나무로 지은 예배당이지만 줄으면 넓히기도 하는 열심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티랄 Mutilal 형제가 돌보는 바타시 Batasi 교회는 서울 호창교회의 후원으로 새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오 월경 예배당 건축 완공과 함께 본격적인 그 지역의 전도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예배당 건축시작 때부터 동민들의 반대와 훼방이 있는 곳으로 강력한 지역 악령들의 쫓박을 깨트리는 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모든 선교지가 그러하듯이 저희들의 사역지에도 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를 일찍 받고 싶다며 목회자를 복아대는가 하면 세례받기로 예정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힌두교의 강력한 회유와 협박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힌두교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월 오월은 정부의 정권 교체에 의해 오 년마다 가지는 선거철로서 일부 힌두교도들이나 무슬림단체들이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연약한 기독교도들을 물질로 회유하거나 집단적인 위협을 가하며 기독교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거는 치열하여 보안 통제를 목적으로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날짜에 투표합니다)

징가조티 Jingajhoti 교회의 몽갈 Mongal 형제의 경우 같은 마을 한 집안에 동생은 기독교 목회자로 그의 형은 힌두교 지도자로서 활동합니다. 동생인 몽갈 이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의 형은 힌두교의 후원을 입어 같은 마을 입구에 힌두교 신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결은 사역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신도들의 신앙 보존을 위하여 기도를 바랍니다.

〈호산나 스쿨 사역〉

교회개척과 더불어 함께 서가는 호산나 스쿨은 이미 기존의 세 학교와 함께 실리구리 근교에 자리한 나환자 교우들의 공동체 생활 거처에 하나 더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미 교실 건축을 마치고 주말 예배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의 호산나

스쿨은 해마다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늘어나 이들에 대한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엔 나환자 존 학교와 나머지학교의 발전을 전담할 요원을 신학교졸업식을 전후하여 한 명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호산나 스쿨을 위한 기도제목- 교사들의 헌신, 학생들의 바른 성장, 교육 전담 요원 임명입니다.

〈기타 소식들〉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만석 감리교회 청년부의 단기 선교 방문과 1월 13일 호창교회 김정민목사 일행이 중구 용산 지방을 대표하여 현지를 방문, 호산나 스쿨의 교실 봉헌예배를 가졌으며 1월 21일 대전 산성교회에서 실리구리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2월 23일 서울 오름교회에서 웨스트빙갈지역 선교사를 위해 캘커타에서 영성 훈련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위의 두 교회는 선교현장으로 찾아 나와 선교사들을 격려 하는 것으로서 저의 십 여 년이 넘는 선교사 생활에서 처음 겪은 매우 인상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로써 선교사들은 선교적인 열정의 회복을, 방문한 교회들은 선교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인도의 수도 델리 Delhi에서 아시아 감리교 감독회의에 앞서 인도 감리교와 한국 감리교 인도 선교사들 간의 선교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회합을 감리교 인도 선교 1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당시 한국 감리교 대표로 신성구감독님과 이원재 선교국 총무와 저를 포함한 몇 인도 선교사와 인도 감독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의 준비과정과 공식적인 대화를 가지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적 안목을 더 넓히며 인도 감리교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숙하고 세련된 복음적 영성을 갖추도록 저들을 도울 수 있겠다 느꼈습니다.

이곳 선교지 실리구리 사역에서 근래에 눈에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는 저와 협력하고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파송된 이재수 선교사와 마전교회 파송의차명철 선교사 사이의 협력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역에 대한 통괄을 조선교사가 맡으며 신학교 행정부문을 이재수 선교사가 그리고 차명철 선교사는 아직 훈련 과정 중이나 후반기부터는 교회 개척 및 호산나 스쿨 사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협력 선교는 보통 힘들며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통념과는 달리 저희들은 기도와 영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교 선교에서 협력 사역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대가 되는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29일 열방신학대학 졸업식 을 기해 인턴 만석교회 팀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통해 현장의 선교사들은 힘을 얻고 방문자들은 선교 의 필요성과 선교지의 영적 기운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히말라야 지역 선교를 위해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서 시간을 내어 이곳 선교지를 방문해 주십사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선교지 방문은 피어린 예수와 심장을 맞보는 기회, 영적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해 짓눌림에 눌린 영혼들의 보이지 않는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선교의 심정을 회복하는 기회와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타 마음 기울여 기도를 요청하는 제목들〉 1. 필박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물질적 화유와 신체적 위협에서 곧게 신앙을 지키도록, 2. 영적 훼방을 잠재우도록, 교인들에 대한 힌두교도나 무슬림들의 화유와 필박에서, 그리고 사탄의 분리 전략으로 한때 친밀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와 권위에 대한 공격들을 이기도록, 3. 필요한 선교재정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재정상황으로 선교 담당자들이 요동함이 없기를, 4.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 보호, 특히 조동욱 선교사 내외가 안식년의 기회를 얻도록.

근래의 경제적 혼돈을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기나 하나님 안에서 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우리 평생에 행할 일을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선교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그 일에 힘과 재물을 공급하십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요람, 영적 권세로 가난과 부요를 다스리며 힘찬 삶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내 평안하십시오.

2009년 부활절 인도 히말라야 에서 조동욱 김은영, 이재수 강세실, 차명철 조선미 선교사

성금요일에 만난 예수

조동욱 선교사

고난의 길을 향해
정든 고향을 떠나 온 예수
가슴 찢어 아파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배고파하는 가난한 이들을 찾아
편히 앉히고 맘껏 먹이고
어둠에 갇힌 소경 눈을 열 며
귀신 들린 이를 풀어 농기를 거듭 또 거듭
버림받은 이들과 뒤엉켜 푸른 잔디에 몸을 뒹굴면
피곤한 그 몸에 생기가
연민에 젖은 얼굴에 웃음이 번져가고
너나없이 뒤엎킨 예수의 들판에
자유가 피어난다.
화평이 덩굴처럼 번져 나간다.
이제 그 모든 정겨움이 멀어져 가는 시간.
환호하는 군중들의 찬양도 아물 그리고
친구 예수를 아쉬워하는 동지들의 눈물조차 말라갈 즈음
숙명의 좁은 길을 찾아
홀로 나서는 예수 가난과 겸손이 당신의 본 모습인양
여러 새끼나귀 뒤 에 떨어진 채

등 굽은 당나귀에 올라 뒤퐁대는 걸음으로
마지막 가야 할 곳을 찾아드는 예수 너울 좋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 다듬어진 차갑고도 날카로운 살인 음모와
헤프게 소리치는 군중들의 아우성 뿐 예수는 거짓에 분노한다.
예수는 참 생명에 갇잡혀 한다.
예수는
썩어가는 시체 위를 하얗게 희칠한 무덤처럼
종교 속에 감추인 위선과 비 진실을 향해
회초리를 다루며
변론으로 나아간다.
하늘 뜻 헤아릴 길 없는 눈 먼 저들인 줄 알아
차라리 침묵에서 침묵으로 나아간다.
드디어 하나 밖에 없는 빈 몸을 내놓으며, 삶으로
진실을 담으려는 그의 침묵을
날카로운 채찍인들 어찌 깨트리랴
이방인들의 조롱이
별거벗은 등을 벌건 피로 물들일지라도
진리란
반드시 길을 길을 걸어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기에
하늘이 맡긴 그 길을
피 부리며 걷는다.
골고다로 치달는 마지막 고비에
예수
걸음을 잠시 돌려 내 집을 찾아 문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
핏기 어린 그의 얼굴을 마주쳤다. 숨이 막힌다.
말을 잃어 버렸다.
내가 그 분 얼굴을 보다니
그렇게 마지막 얼굴을 내게 보이시고
십자가를 끌며 마저 남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셨다.
비틀거리던 발자욱에 남겨진 핏자국을 보지만 앎없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것을 예수
내 마음에 핏자국을 남기며
그 분은 그렇게 가셨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그 분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는 부활로 오시 고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신다.
 그의 얼굴을 대하 며 큰 웃음 지을 날
 그와 함께 푸른 들판을 다시 달릴 날을 기다린다.
 땅 어린 그분의 얼굴에 보았기에
 그 피가 내 마음에 응통 그리기에

나의 애장품- 아버지의 동화책

이경화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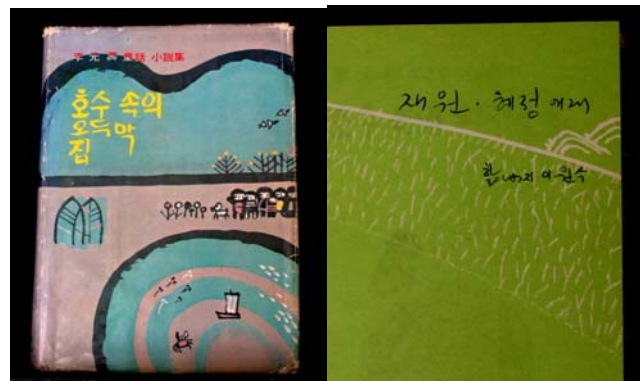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李元 壽: 아동문학가)께서는 생존하셨을 때 우리 가정이 워낙 가난하게 살아온 까닭에 아버지께서는 농담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내가 쓴 글과 이 만년필 밖에는 없다' 하신 일이 자주 있었다.

아버지께서 15살에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시작되는 '고향의 봄'을 발표하신 이후로 70세에 돌아가시기 직전 통시 '겨울 물오리'를 쓰시기 까지 많은 글을 끊임없이 쓰셨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글을 엄청난게 많이 물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장남인 내가 좀더 일찍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아버지를 옆에서 모셨어야 했을 터인데 서론이 없어서 늦게 유학 나와서 아버님의 노년기에 건강과 살림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돌아가신 병환의 원인인 암을 조기발견 해서 치료할 수 있었더라면 더 사실 수 있었을 게고 더 많은 글을 남기실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불효자식의 후회하는 마음이 늘 맺혀있다.

아버지께서는 70평생의 삶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수많은 글을 쓰셨는데 작품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겪은 어려움,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동화, 동시, 또는 소년소설에서 소재로 다루시면서 올바르게 살아나가야 될 길과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글을 쓰셨다.

일제와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터진 6.25 한국전쟁은 우리민족이 겪은 가장 큰 고통스러웠던 사건이었고 휴전이 된 후에도 전쟁의 결과로 물고온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은 더욱 심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기는 아버님으로 하여금 더욱 깊이 있는 글을 쓰시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버지께서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울 때 쓰신 글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애장품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아끼는 책의 하나인 '호수 속의 오두막집'이란 책은 이런 시기에 쓰신 글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1975년 출판되었는데 이때 나는 이곳 뉴멕시코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내 아들 재원이 10살, 딸 혜정이 8살 때 였는데 아이들에게 읽어주라고 아버님께서 이 책을 보내 주신 것이 다.



'호수 속의 오두막집' 책을 미국에 와있는 손자 손녀에게 보내 주셨다. 책의 표지와 첫 페이지에 손자손녀의 이름을 쓰신 친필.

이 책은 40개의 동화와 시, 소설 등을 실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호수속의 오두막집'이다. '호수속의 오두막집'은 우리 가족과 아버님이 직접 담했던 고통을 바탕으로 쓰신 글이기에 감회가 더욱 깊다.

6.25전쟁 때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다가 UN군의 인천상륙으로 북으로 후퇴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 가족을 버려둔채 월북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남은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 13살의 나와 11살의 동생 둘은 함께 매일 신문장사를 해서 집안 식구를 도왔고 어머니는 폐허가 된 서울에서 막일이라도 하시겠다고 동분서주했으나 끼니를 이어가기에는 턱부족이었다.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세 동생 아이들을 고아원에 위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위기를 맞았다.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서울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 혼란 속에서 세 동생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고아원에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감작스런 후퇴작전에 휘말려 일부는 비행기로 후송되고 일부는 후퇴하던 도중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든가 전쟁의 불길속에 희생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서울은 인민군의 지배하에 다시 들어왔다. 북으로 가셨던 아버지께서는 쫓기는 몸으로 북으로 몰리다가 인민군이 중공군과 함께 서울을 점령 하게 되자 남으로 내려와 안암동 우리 가 살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인천에 피난처가 있었고 서울 안암동 우리 집은 물론 온 동네가 텅빈 Ghost Town이었다. 모두가 피난가고 빈집 뿐이었었다. 아버지께서 살아오시기만 바라는 기도를 늘 해오신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꿈을 꾸셨다. 그 다음날 밤 어머니께서는 인천서 서울까지 눈 덮인 밤길을 걸어 새벽엔 한강에 도달하고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 아침해가 떴을 때 어머니는 서울집에 도착해서 집을 한 바퀴 둘러보고 아버지께서 오신 흔적이 없음을 보고 실망해서 집을 나서려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이 집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이 되어 가족의 기적적 재회가 이루어졌다.

아버지께서 월북하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족을 만나 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남으로 북으로 흩어져서 생사를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불행한 경우의 슬픔을 '호숫가의 오두막집'에서 동화로 얘기하고 있다.

동화의 내용은 인민군으로 월북한 아들을 평생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의 애절한 마음을 그린 것이다. 아들이 살던 집이 발전소 저수지 공사로 물에 잠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월북한 아들을 기다리는 할머니는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울부짖는다. 집이 물속에 잠기고 이사를 가 버리면 월북한 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머니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사랑은 이념도 사상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화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의 책으로 '꼬마옥이'가 있다. 이 동화는 잃어버린 3살짜리 동생 상옥이를 생각하며 쓰신 글이기에 읽을 때 마다 나는 죄 없이 죽었거나 아니면 살았더라도 버림받고 고통 속에 고토로 살아가야 했을 동생이 불쌍해서 물어버리고 만다.

동화 내용은 이렇다. 주인공인 내가 피난길에서 옥이란 이름의 소녀를 만난다. 그러나 얼마 후 옥이는 병으로 죽고 죽은 옥이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소녀의 인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나'로 나오는 극중 등장인물은 글을 쓰신 아버지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현실과 환상을 오가며 쓴 시적인 면이 강하여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나는 눈 속 시골집에서 눈 쌓이는 산천을 멍하니 내다보고만 있었다.

눈을 보고 있으면 내 딸 상희가 자주 만 생각나는 것이었다. 유달리도 귀엽던 세 살짜리 상희! 코고 통그란 눈, 귀엽성 있게 생긴 입술- 내가 저녁때 집에 들어오면 면에서 보고 달음박질로 뛰어와서 내 품에 안기려고 제 몸뚱어리를 내던지듯 내 몸에 부딪히며 좋아하던 상희! 그 상희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동화속에 나오는 상희란 곳 나의 동생 상옥을 생각하고 쓰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잃은 동생 중 제주 도로 후송된 동생을 찾았으나 한 살짜리 동생은 안양고아원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살 먹은 동생은 생사를 알 수 없었으나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었다. 그것은 그가 있었던 고아원의 일부 어린아이들이 대구로 피난을 갔었고 그 뒤 미국으로 입양되어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입양아들의 이름이나 기타 기록이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했다. 그 이후 나는 미국서 38년간 살아오는 동안 동생을 찾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고대하며 늘 지내왔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미국인을 남편으로 둔 내 동생 나이벌의 여자교인이 새로 나오면 혹시 나 이 여인이 내 동생 상옥이는 아닐까 하는 희망부터 가져본다. 그러다가 그의 부모가 한국에 버젓이 계신 분임을 알고서야 희망을 버리곤 한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일생의 작품을 모두 모아서 33권의 전집이 동생 (李貞玉)의 노력으로 웅진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고 동생은 이 책을 보내주어 오늘날 우리 가족의 애장품이 되어있다. 일만 페이지가 넘는 전집 속에는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께서 가졌던 간절한 생각, 깊은 느낌, 사랑의 기쁨과 슬픔, 전쟁에 대한 미움과 아픔과 분함.....모든 것이 담겨있다.



1977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한 이원수 동화집 '꼬마 옥이'는 나의 애장품 일호이다.

VOX KOREANA (2007-3-30)에 전재된 원고입니다.

'평생감사'를 읽고 (여 행 후 걸린 병)

이 은희 집사 -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변해가는 바깥풍경을 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한마디. 그러나 바쁨이 생활이 되어버린 남편과 하루가 2시간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학업에 찌든 아이들 틈에서 나의 이 중얼거림은 사치스런 투정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삶의 각박한 일상 속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에 전 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책을 통하여 뜻밖의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기독교 서적 중 그것도 베스트셀러라는 말에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 은혜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안도감, '평생감사'라는 제목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는 편안함, 이러한 느낌이 이 책을 펼치면서 내가 갖게 된 첫 인상이다. 책장을 하나하나 넘겨감에 따라 심각한 길치인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나듯 평온함이 마음에 깃든다.

책 속의 여행길에 들어 선지 얼마 안 되어 겸손한 저자가 가이드를 자청하며 옆 좌석에 앉는다. 글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자 헌신하시는 전 광 목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이 여행의 목적과 주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다. 이 여행을 다녀온 후 감사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여행 중 너무 빨리 달리지 말

라는 것이 그것이다. 전 광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코스의 여행길을 인도하며 계절의 느낌과 잘 어울린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명 인사들의 감사로 일구어낸 인생역전 스토리, 성경 속 인물들의 능력 있는 감사 그리고 지인들과 본인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진솔하고 잔잔한 감사 이야기들....

설교 시간에 들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목적지를 향한 급한 마음에 나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 때마다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여행을 안내하시는 목사님은 참된 여행을 음미하기 위해 천천히 달릴 것을 요청한다. 익히 알고 있지만, 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용한 묵상이 필요해서 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차창밖에 그려진 풍성한 이야기들을 내 가슴에 담기위해 가속 페달을 조금 늦추어 본다.

토크 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히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랐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본인 또한 14세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2주 만에 죽었다. 마약복용과 107kg의 비만 등으로 살 의욕이 전혀 없던 그녀가 성경을 통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었고, 지금도 매일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하루 다섯 가지의 감사 목록을 찾아 감사 일기를 적는 것이란다. 감사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로 감사하는 습관이 그녀를 강하고 축복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현대인은 상대적인 빈곤감과 불행감에 허덕이고 있지 않는가? 나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것도 없을 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이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전 광 목사님은 감사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차창밖에 그려진 이야기들을 묵상한 후, 목적지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된 여행길에 들어선다. 좁은 터널이 나오고, 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역수 같은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해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핸들을 잡은 손에는 땀이 흐르고, 과도하게 힘을 준 탓인지 팔은 조금씩 경직되어 감을 느낀다.

옥중에 매여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해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가시에 찔림과 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한 사도 바울. 신대륙에 도착한 후 극심한 굶주림과 혈벗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도 잊지 않고 드린 청교도들의 절망 중의 감사예배.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순교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린 손 양원 목사님의 거액의 감사 헌금.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나 두

아들의 순교는 어찌 더 귀하지 않으리오. 유학을 준비한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곳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하다는 장례식장에서 읽어 내려간 손 양원 목사님의 감사 답사. 이 부분을 여행하며 운전대를 잡은 나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가슴은 두근두근 방망이질 치기 시작하였다. 어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천국을 진정 소유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닐까? 목사님은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인생의 삶 속에서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면 옷 한 벌, 밥 한 끼,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된다고....

책 속의 긴장된 여행 코스가 지나갈 무렵에 목사님은 자신의 글방으로 나를 초대하였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조그마한 감사 글방, 글방 앞에는 큰 느티나무가 서있고 너른 바위가 하나 놓여 있다. 문을 열고 글방으로 들어서자 책상이 놓인 벽면에는 가운처럼 보이는 '평생감사' 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또 다른 벽면에는 제로 감사, 가시 감사 등등 감사의 글귀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감사 글방에 앉자 몇 해 전 남편의 감사 헌금봉투로 경험한 기적의 사건이 떠올랐다. 침샘관이 막혀 혀 밑에 파리 같은 물주머니를 달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막내둥이 딸 지수, 딸의 수술을 앞두고 출장을 떠나야만 하는 아빠, 남편은 주일 전날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봉투에 감사 내용을 적었다. 수술이 잘되게 해달라는 바람도 아닌 그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 막내딸은 막힌 침샘이 터져 희뿌연 물과 같은 침을 한 움큼 뱉어내었다. 다음날 의사 선생님은 며칠 후에 다시 재발할 테니 그 때 수술을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막내딸의 혀 밑에는 작은 흉터하나 남아 있지 않다. 안타까운 심정 속에 아비가 드린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걸 확신한다. 그래 나도 감사의 기적을 체험했네 마음이 울컥해진다.

감사 글방에서 잠시 나의 체험을 되돌아 본 후 목적지를 향한 나머지 여행길을 재촉한다. 남은 여행길에서 목사님은 주로 자신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신다. 유학생할 중 만났던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 귀국 후 가족과 누리는 편안함 속에서의 감사 등등 글방을 오고 가며 글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하셨다. 또 평생감사하며, 작은 일에 매순간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는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의 책속 여행은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다.

책 속의 여행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껏 감사의 추억에 잠겨본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추억과는 달리 감사의 추억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소망을 꿈꾸게 한다. 그래서 감

사의 추억은 아무리 늘어놓아도 주책이라 말하지 않는다. 평생 감사의 책 속에서 다녀온 여행지 감사 글방, 나도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런 방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 곳에서 감사 일기를 적고, 즐거울 때는 마음껏 감사 기도를 드리며, 어려울 때는 감사 추억을 꺼내보며, 또 나처럼 감사의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늦은 밤, 잠깐 큰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기도를 꼭 하고 자는 우리 아이, 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꺼내며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먼저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어느새 평생 감사의 책 속 여행을 통해 걸린 병으로 인해 감사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것일까? (이은희)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집 울타리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얗고 긴 수염을 가지신 3 분의 노인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잘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길

"나는 당신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신들은 많이 배고파 보이시는군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요."

"집에 남자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말했다.

"아니요, 외출 중입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라고 노인들이 말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 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집에 돌아 왔다고 정중히 말하고 안으로 모시라"고 하였다. 부인은 밖으로 나가서, 그 노인들에게 안으로 들라고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왜죠?"라고 그녀가 물었다.

노인 중 한 사람이 설명하였다.

"내 이름은 부(富)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며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成功)이고."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Love)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말하였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셋 중 하나만 초대하라고요.

"부인한테 이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말했다. "굉장하군!" "이런 경우라면, 우리 부를 초대합니다. 그분을 집안으로 들게 해 우리 집을 부로 가득 채웁시다."

그러나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여보, 왜요 성공을 초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자 이때 착한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두 내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

신의 제안(생각)을 내놓았다. "사랑을 초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어때요?"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다. "밖에 나가 사랑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부인이 밖으로 나가 세 노인에게 물었다.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사랑이 일어나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른 부와 성공도 일어나 사랑과 함께 들어왔다. 놀라서, 부인이 부와 성공에게 물었다.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시죠?" 두 노인이 같이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부 또는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둘은 밖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하였고, 사랑이 있는 어느 곳이나 우리 부와 성공은 사랑을 따라다니지요."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가는 곳, 그 어디에라도 거기에는 부와 성공이 함께 있지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합 감리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철수)

주옥같은 말의향기

사람은 태어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5백만 마디의 말을 한다는 것이다. 원석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듯 말도 갈고 닦고 다듬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예술이 된다.

1.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라. 그 곳에서는 히트곡이 여기서는 소음이 된다.
2.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말에도 돈도가 있으니 썰렁한 말 대신 화끈한 말을 써라.
3.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열 올리지 말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4.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체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은 생기게 마련이다.
5. 상대방을 보며 말 하라. 눈이 맞아야 마음도 맞게 된다.
6. 풍부한 예화를 들어가며 말하라. 예화는 말의 맛을 내는 훌륭한 천연 조미료이다.
7. 한 번 한 말을 두 번 다시 하지말라. 듣는 사람을 지겹게 하려 면 그렇게 하라.
8. 일관성있게 말하라. 믿음을 잃으면 진실도 거짓이 되어 버린다.
9. 말을 독점 말고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류다.
10.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말을 자주 가로채면 돈 빼앗긴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

11.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의 의견도 옳다고 받아들여라.
12.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죽는 소리를 하면 천하장사도 살아남지 못한다.
13. 상대방이 말 할 때는 열심히 경청하라. 지방방송은 자신의 무식함을 나타내는 신호다.
14. 불평불만을 입에서 꺼내지 말라. 불평불만은 불운의 동업자다.
15. 재판관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려말라. 옳고 그름은 시간이 판결한다.
16.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도 말을 하라.
17. 조리있게 말하라. 전개가 잘못되면 동쪽이 서쪽된다.
18. 결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감싸주는 것이 덕망 있는 사람의 태도다.
19. 편집하며 말하라. 분위기에 맞게 넣고 빼면 차원높은 예술이 된다.
20. 미운 사람에 게는 각별히 대하여라. 각별하게 해주면 적군도 아군이 된다.
21.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향해 쓰아물린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명중된다.
22. 재미있게 말하라. 사람들이 돈 내고 극장가는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23. 누구에게나 선한 말로 기분 좋게 해주어라. 그래야 좋은 기의 과장이 주위를 둘러싼다.
24.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기에다 바른 세상이다.
25. 말에도 맛이 있다.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말을 하라.
26. 또박또박 알아들도록 말하라. 속으로 웅얼거리면 열불하는지 욕하는지 남들은 모른다.
27. 뒤에서 헐뜯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말라. 모진 눈 옆에 있다가 벼락맞는다.
28.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라.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오게 된다.
29.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말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30.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열번이라도 물어라. 묻는 것은 절제가 아니다.
31. 밝은 음색을 만들어 말하라. 들기좋은 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게 느껴진다.
32. 상대방을 높여서 말하라. 말의 예절은 몸으로 하는 예절보다 뒷자리에 있다.

33. 칭찬 감사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따른다.
34. 공통 화제를 선택하라. 화제가 잘못되면 남의 다리를 굽는 셈이 된다.
35.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
36. 대상에 맞는 말을 하라.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 좋아하는 말도 다르게 마련이다.
37.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조심해서 말하라.
38. 품위있는 말을 사용하라.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의 인격을 나타낸다.
39. 자만 교만 거만은 적을 만드는 언어다.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말하라.
40.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임종할 때 쓰는 말이다.
41. 표정을 지으며 온 몸으로 말하라. 드라마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42. 활기있게 말하라. 생동감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원동력이다.
43.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것이 승리자의 길이다.
44. 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
45. 실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변명이 나쁘다. 실언을 했을 때는 곧 바로 사과하라.
46. 말에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다. 자신이 한말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47. 말이 씨가 된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48. 말하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배워라. 스스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이석종 목사 제공)

마른 장작

국 정현 권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되도다"
저는 믿음의 근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반석위에 서지 못한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도마와 같은 믿음만이라도 저에게 허락 하옵소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추운 한 겨울날 소여물을 끓이시던 어머니께서

떨림이 모자라 저에게 처마 밑에 쌓아 놓은
장작을 가져오라 하셨지요.
푸른빛이 채 가지지 않은 한 아름의 나무를 들고 갔
더니, 어머니께서는 습기가 많아 잘 타지 않으니
오랫동안 바람결에 마른 황갈색의 나무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에서 벤지 얼마 안 된 나무들은
땅에서 빨아들인 온갖 물질들이 습기로 남아 있고,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함의 푸른빛으로 인해
뜨거운 불길에도 쉬이 타지 않습니다.

몇 해를 처마 밑에 쌓여 모진 비바람과 햇살을 맞아
몸 속 깊숙이 남아있던 세상의 잔재들을 토해 내고,
굽힐 줄 모르던 교만함이 누렇게 수그러들고,
마침내 앙상한 뼈대만 남은 마른 장작.

그제야 마른 장작은 작은 불길에도 활활 타오릅니다.
땅 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들이 뿌리가 잘린 채
그대로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썩어져 흙으로 돌아 갈 뿐,
오직 오랫동안 물에 불리고, 햇볕에 말린 나무들만이
목수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가구로 탈바꿈되고,
쓸모 있는 건축자재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출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세상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과의 영적교제를
공고히 한 사십 년간의 모진 광야생활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배어 들은
세상의 불 신앙적 지식과 판단력을 제하여 주시고,
교만함을 눌러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질없는 목표만을 위하여 달음질하는
숨찬 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삶의 고난을 견디어
주님 주신 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 삶의 뜻대로 삼아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웃어봅시다 (새복기도)

ne il sebuck kido silrugo 10 si e sungkyung kongbudo
itgo~ jal ja
"엥??? 이게 문 소리여???
"울 남편 해석..
"내일 새복기도 시고, 성경 공부도 있고 잘자래잖아~ "
"우하 하하하하하~까르르르르르~"
"너네 속장님 영어가 편한 사람인데 니가 월매나 영어
를 못하면 저러겠냐 ~한참 걸렸겠다."
"엥????? ㅎㅎㅎㅎㅎㅎ 문소리~"
에니웨이-우리 속장님 바르게 읽기 짬입니다.
앤드-발음기호도 적어구 요~
아이큐도 높은가 봅시다~
저는 silrugo 가 해석이 안되서 오늘 새복기도 갔습니당.
성경공부는 잊으라케서 잊었습니당 헤 헤~
너무 너무 재미있는 문자 하나로 밤새 웃고-자다가도

웃고 또 지금도 웃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실실 거릴거 같아요.
새복기도~ 하면서.
혹시, 우리 소망 식구들 중에 숨어 있는 두자리 IQ 를
가지신 노력파가 계실까 싶어 해석 답니다.
내일 새벽기도 쉼려고, 10시에 성경공부도 있고~잘자 엿
습니다..헤헤~
우리모두 한글문자를 날립니다~
saranghaeyo, somangso~ ~~~~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박지나)

뉴멕시코 교회 예배 안내

교회 이름	주소	연락처
갈릴리 장로 교회	23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류종재목사 505 275-6018
라스쿠르세스 한인 침례교회	1132 S.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김용식목사 575 635-1624
산타페 한인 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노강국목사 505 412-5420
샌디아 한인 장로교회	Sandia Presbyterian Church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NM	김영임목사 505 823-1678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Albuquerque KUMC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김기천목사 505 803-7716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87121	윤정렬목사 505 331-9584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이사현 505 271-8031 이선아 505 828-0306
주님의 교회	East Gate Church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김의석목사 505 903-2297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NM 87401	신정일목사 505 453-5461

알버커키의 스시 레스토랑 제팬고

**JAPENGO
SUSHI**

A TASTE OF TRADITIONAL JAPANESE
WITH A CONTEMPORARY TWIST

LUNCH Mon - Fri 11:30-2:30pm • Sat & Sun 12:00 - 2:30pm
DINNER Mon - Thurs 5:00-9:30pm • Fri & Sat 5:00-10:00pm • Sun 5:00-9:00pm

Phone: (505) 344-4469
Fax: (505) 344-2654

Century Rio 24 Complex
4959 Pan American Freeway; Suite C